

정서표현양가성과 심리적 부적응,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집단주의 문화성향의 조절효과

박원주
한양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

The Moderating Effects of Collectivism in the Relationships between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Psychological Maladjustment, and Subjective Well-being

Won-Ju Park

Division of Counseling Psychology, Hanyang Cyber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인들의 정서표현양가성이 심리적 부적응과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지와 이러한 관계에서 집단주의적 문화성향이 조절 효과를 보이는지를 탐색적으로 알아보는 것이다. 정서표현양가성의 문화차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에서 가능성만을 제시할 뿐 실증적 연구는 없으므로 이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전국의 성인남녀 138명을 대상으로 정서표현양가성, 문화성향, 심리적 부적응증상, 주관적 안녕감을 측정하는 설문을 온라인 방식으로 실시했다. 조절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정서표현양가성, 집단주의 문화성향, 이들 간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정서표현양가성은 심리적 부적응증상과 주관적 안녕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나, 집단주의 문화성향의 조절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정서표현양가성은 심리적 부적응증상을 증가시키고, 주관적 안녕감을 저하시키는 역할을 하지만, 이러한 관계에서 집단주의 문화성향은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결과에 대해 정서억제와 정서표현양가성이 집단주의 문화와의 관계에서 보이는 차이, 그리고 이들의 임상적 함의의 관점에서 논의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AEE) on psychological maladjustment and subjective well-being. Furthermore, we examined the moderating effect of collectivism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AEE, psychological maladjustment and subjective well-being. Many Korean psychologists have suggested a moderating effect of collectivism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but there are few studies that have examined these relationships. Consequently, it is necessary to investigate these effects. Data concerning AEE, individualism, collectivism, psychological maladjustment (BSI), and subjective well-being were collected from 138 adults in South Korea. To test the moderation effects,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was conducted. Results found AEE increased psychological maladjustment and decreased subjective well-being. However, the moderating effect of collectivism was not foun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EE and psychological maladjustment, as well as AEE and subjective well-being. The difference of emotion suppression and AEE regarding cultural orientation and clinical implication of these findings were discussed.

Keywords :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collectivism, psychological maladjustment, subjective well-being, moderating effect

*Corresponding Author : Won-Ju Park(Hanyang Cyber Univ.)

Tel: +82-2-2290-0364 email: 1140002@hycu.ac.kr

Received September 18, 2018

Revised (1st October 16, 2018, 2nd November 15, 2018)

Accepted December 7, 2018

Published December 31, 2018

1. 서론

정서를 표현하고 억제하는 것에 대한 기준과 그 영향력은 개인의 주관적 평가체계와 함께 그가 속한 사회 문화적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정서표현을 억제하는 것은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1,2,3], 서구 개인주의 문화권에 비해 동양의 집단주의 문화권에서 그 영향력이 적다[4,5]. 이는 사회문화적 가치와 규범이 개인의 정서조절과 표현방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즉, 집단주의 사회의 경우 개인의 감정을 주장하기보다는 공동체를 먼저 배려하고 거기에 맞추려는 가치가 우세하므로[6,7], 정서억제를 보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이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적은 것이다[4]. 이러한 정서표현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나타나는 문화적 차이에 대한 연구는 주로 정서억제에 관해 이루어졌다, 최근 들어 정서표현과 관련되어 있으나 정서억제와는 차이가 있는 개념으로, 정서표현에 대한 내적 갈등을 의미하는 정서표현양가성[8]이 주목받고 있다. 최근 들어 여러 연구들[9,10,11,12,13]에서 정서표현양가성이 심리적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문화적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지만, 실증적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높다.

정서표현, 정서억제, 그리고 정서표현양가성이 심리적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과 이러한 과정에서 문화적 차이의 역할에 대한 연구 결과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다. 정서를 잘 표현하는 것은 심리적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8], 주변 사람으로부터 정서적 지지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한다[1]. 같은 맥락으로, 정서표현을 억제하는 것은 이미 경험한 부정적 정서를 해결되지 않은 채로 쌓아두게 되어 우울, 불안, 대인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2,3,14]. 또한 정서표현을 하지 않을 경우 신체적 각성이 발생하여 심리적, 신체적 질병을 발생시킨다[15].

그러나 최근에 정서억제가 심리적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정서표현을 하거나 하지 않는 것은 상황적 요인, 표현에 대한 개인의 성격차이, 정서자체의 특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16]. 따라서 신체적 각성을 일으키는 정서억제도 있지만 편안하게 정서를 표현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8]는 것이다. 나아가 정서표현을 하지 않는 것 자체

보다는 정서를 표현하고 싶지만 정서표현을 하지 못하고 갈등하는 것이 건강과 더 관련 있다[15]고 할 수 있다.

즉, 정서표현을 한 결과가 긍정적이기도 하고 부정적이기도 할 경우 이에 대해 양가감정을 느끼게 되는데, 이러한 정서표현에 대한 양가감정은 주관적 안녕감과 심리적 및 신체적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사람들은 양가감정을 느끼고 갈등하는 것에 대해서는 행동에 옮기지 않는 경향이 있으므로, 정서를 표현하는데 있어 양가적 갈등을 느끼는 사람들은 정서를 잘 표현하지 않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이로 인해 정서표현에 양가적인 사람과 정서표현을 억제하는 사람간의 혼동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적응적인 이유를 포함한 다양한 원인에 의한 정서억제보다는 정서표현양가성 즉, 정서 표현과 억제의 이면에서 목표 갈등을 경험하는 것이 심리적 및 신체적 질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17]. 뿐만 아니라, 정서표현양가성은 주관적 삶의 질 즉, 개인이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감을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주관적 안녕감[17]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9].

King과 Emmons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싶지만 감정표현의 결과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이를 억제하며 갈등하는 것, 원하지 않는 정서를 표현하고 후회하는 것 등’을 의미하는 정서표현양가성(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개념을 제안했다[8]. 정서표현양가성은 우울, 불안, 신체화 등의 심리적 부적응 수준을 높이고[9,18,19], 주관적 안녕감을 저하시킨다[20]. 최근 들어 정서표현 억제의 부정적 영향이 그 사회의 문화적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기존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하여 정서표현양가성과 문화의 관계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정서표현양가성의 부정적 영향은 개인주의 문화와 집단주의 문화에서 차이가 있다는 주장[21]이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제시된 이후 이에 대한 추가 연구들을 찾아보기 어렵다. 최근 국내에서는 정서표현양가성 척도 한국어판을 타당화하면서 두 개의 하위요인을 제시했고, 이러한 하위요인에 따른 영향에서 집단주의 문화의 관여가능성을 시사하는 연구들이 다수 보고되었다. 그러나 이들 연구들은 모두 집단주의 문화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을 논의했을 뿐 실증적 연구결과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King과 Emmons는 정서표현양가성 척도를 개발하면서 긍정적인 정서의 표현에 대한 양가성(예, 나는 사랑

한다고 말하고 싶지만 적당한 표현을 찾기가 어렵다)과 부정적인 정서의 표현에 대한 양가성(예, 화를 내고 나면, 그것 때문에 오랫동안 괴롭다.)의 두 차원을 찾았으나 이들 두 요인 간 상관이 높고 문항 전체의 내적 일치도가 높다는 이유로 단일차원모형을 선택했다[8].

한국에서는 최해연과 민경환이 정서표현양가성 척도를 타당화했는데, 이들은 정서표현양가성을 동기적 관점에서 해석하여 자기방어양가성과 관계관여양가성 두 요인으로 제시했다. 자기방어양가성은 자신의 정서표현 이후의 부정적 결과에 대한 두려움, 정서표현에 대한 불능감, 긍정정서 표현 양가성, 억제와 미충족된 표현 욕구를 포함한다. 즉 자기방어양가성은 자신의 정서를 표현하는 것이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고 정서를 잘 표현하는 방법을 모른다고 생각할 때 경험하게 된다. 관계관여양가성은 정서표현이 상황과 상대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함으로써 경험하는 갈등으로 의식적인 행동이나 표현의 통제, 표현차폐, 관계관여성을 포함한다[9]. 그들은 이러한 두요인 구조에 대해 관계관여적 양가성이 한국인의 집단주의적 문화성향을 반영하는 측면이라고 했다. 또한 국내에서 자기방어양가성보다 관계관여적 양가성이 여러 부적응의 지표들과의 관련성이 낮은 것에 대해 한국사회의 집단주의적 문화의 영향으로 해석하고 있다. 즉, 정서표현양가성과 심리적 부적응의 관계에 있어 집단주의 문화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관계관여양가성의 경우 집단주의 문화의 영향이 더 분명하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언급했다[9].

이후 정서표현양가성과 심리적 부적응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이들 연구에서는 자기방어양가성이 관계관여양가성에 비해 불안, 우울, 주관적 안녕감 [10,11,12], 결혼만족도[6]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이러한 결과는 한국의 집단주의 문화의 영향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에서는 관계관여양가성의 영향에 대해 대부분 일률적으로 집단주의 문화가 관여할 가능성을 논의할 뿐, 이와 다른 시각을 제시하는 경우는 찾기 어렵다. 따라서 이에 대한 확증적 연구를 통해 자기방어양가성에 비해 관계관여양가성의 부정적 영향이 적은 것에 대한 정확한 해석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국내에서 타당화한 정서표현양가성 척도에서 관계관여양가성의 부정적 영향이 적은 것에 관해서는 집단주의 문화가 관여할 가능성과 함께 또 다른 관점, 즉 국내에서

척도를 타당화하는 과정에서 하위요인을 구분한 것의 한계점, 각 하위요인의 성격의 측면에서도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먼저 집단주의 문화의 관점에서 보면, 한국을 포함한 많은 집단주의 사회는 관계 속의 역할, 상호의존성을 강조하며, 타인에 대한 배려와 조화를 지향한다[6]. 이들은 사회관계의 조화를 위해 자기의 욕구와 정서를 표현하기 보다는 자기중심적 표현을 억제하고 타인의 필요에 따라 배려하고 양보하며, 자기조절을 하는 경향이 있다 [6,7]. 따라서 집단주의 문화권에서 성장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본인의 정서표현이 상황과 상대방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서 관계관여양가성에 보다 익숙할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한 심리적 부적응을 적게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관계관여양가성의 영향에 있어 집단주의 문화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척도자체의 특성이 반영되었을 가능성에 대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국내에서 타당화된 정서표현 양가성 척도는 집단주의 문화에서 성장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동기적 관점에서 두 개의 하위요인을 해석하고 제시했다. 하지만 정서표현양가성 척도 타당화 연구[9]에 의하면 정서표현양가성의 하위요인인 자기방어양가성과 관계관여양가성은 두 하위요인 간 상관이 높고, 두 요인을 합친 전체 문항 간 내적 일치도가 높아서 이들이 서로 구분되는 구성개념인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22]. 즉, 관계관여 양가성도 관계관여적 속성에 표현결과를 두려워하거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정서표현에 갈등을 경험하는 자기방어적 속성이 함께 존재할 수 있어[23], 자기방어적 이유로 정서표현양가성을 느끼는 사람과 관계관여적인 이유로 정서표현양가성을 느끼는 사람이 뚜렷이 구분되지 않을 수 있다[24]. 이러한 이요인 구조에 대해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될 소지가 있음이 다른 연구에서도 논의된 바 있다[9].

또한 관계관여양가성의 부정적 영향이 적은 것은, 관계관여양가성에 비해 자기방어양가성이 그 성격상 병리적 특성이 더 많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즉 자기방어양가성은 정서표현에 대한 불능감과 정서표현 결과에 대한 두려움 등을 반영하는 회피적 경향과 정서표현을 억제하는 측면이 다 포함되어 있는 보다 역기능적인 성격이 강하고 관계관여양가성은 정서표현을 억제하는 측면, 특히 타인을 배려하고 관계를 고려한 행동제한의 측면을 반영하고 있어서 역기능적인 특성이 적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9,2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서표현 양가성이 심리적 부적응과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집단주의 문화성향이 조절효과를 보이는지 탐색적으로 알아보고, 정서표현 양가성의 하위개념인 관계관여양가성의 영향에 있어서도 집단주의 문화성향의 조절효과가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정서표현 양가성의 영향에 있어 문화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고, 국내에서 관계관여양가성의 영향에 대해 집단주의 문화의 관점에서 추리적 해석을 하는 것에 대해 실증적 연구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1. 정서표현양가성과 심리적 부적응의 관계에서 집단주의 문화성향을 조절효과는 보이는가?
2. 정서표현양가성과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집단주의 문화성향은 조절효과를 보이는가?

2. 연구 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를 위해 심리학 관련 과목 온라인 강의를 듣는 학생 중 설문참여에 동의한 성인 386명을 대상으로 강의시스템상의 설문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였다. 이 후 설문참여자의 개인주의 성향 분포와 집단주의 성향 분포의 중앙치를 기준으로 하여 고/저 집단을 나누고, 이 중 개인주의의 고/집단주의 저 집단을 개인주의 집단으로, 개인주의의 저/집단주의 고 집단을 집단주의 집단으로 선별하였다. 이러한 집단분류는 여러 연구 [25,26]에서 제시한 문화 수준에서 집단주의-개인주의 차원이 한 개인에게 동시에 존재한다는 주장에 따라 다수의 문화차이에 대한 국내 연구[27,28]에서 사용된 방법이다. 이러한 결과에 의해 집단주의자 65명, 개인주의자는 73명을 최종 연구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들의 연령은 만 19세에서 63세로, 평균 37세이며, 남성 40명(29%), 여성 98명(71%), 거주지역은 서울 47명(34.1%), 경기 28명(20.3%), 경상도 20명(14.5%), 전라도 17명(12.3%), 충청도 16명(11.6%), 기타 지역 순이었다.

2.2 측정 도구

정서표현양가성(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Questionnaire, AEQ)

본 연구에서 사용한 정서표현양가성 척도는 King과 Emmons[8]가 정서표현에 대해 갈등하는 정도에 개인차가 있다는 전제하에 개발하고 최혜연과 민경환[9]이 한국의 문화에 맞게 타당화한 한국판 정서표현양가성 척도(AEQ-K)이다. 이 척도는 총21문항으로 구성되며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표현에 대한 갈등이 높음을 의미한다. 하위요인은 두 가지이며, ‘자기방어양가성’은 과 ‘관계관계양가성’은 자신의 정서를 적절히 표현할 자신이 없거나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는 정서표현에 대한 불능감, 긍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양가성 및 정서표현결과에 대한 두려움, 억제와 미충족된 욕구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즉 정서표현이 가져올 수 있는 부정적 결과에 대한 자기방어적 동기를 반영한다. ‘관계관계적 양가성’은 정서표현행동을 통제함으로써 신중함을 기하려는 ‘의식적인 행동통제’를 나타내는 문항들로 ‘인상관리’나 ‘관계민감성’ 등 관계성을 보호하려는 동기가 반영된다. 기존연구[9]에서 신뢰도(Cronbach's α)는 .90이었고, 하위척도인 자기방어양가성은 .89, 관계관계양가성은 .78이었다. 본 연구의 신뢰도는 자기방어양가성 .91, 관계관계양가성 .85이다.

문화성향

문화성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Singelis, Triandis, Bhawuk와 Gelfand[29]가 제작한 INDCOL 척도를 우리나라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표준화한 척도[30]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개인주의 성향과 집단주의 성향을 각각 수직-수평 차원으로 나누어 측정하여 집단이 수직-개인주의, 수평-개인주의, 수직-집단주의, 그리고 수평-집단주의로 네 집단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문화성향을 측정된 기존 연구들[25,26,27,28]과 마찬가지로 ‘수직-개인주의’와 ‘수평-개인주의’를 합하여 ‘개인주의’를 그리고 ‘수직-집단주의’와 ‘수평-집단주의’를 합하여 ‘집단주의’를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Likert 9점 척도로 되어 있고, 각 유형별로 8문항씩 총 32문항으로 되어 있다. 김기범 [28]의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각각 수직-개인=.71, 수평-개인=.81, 수직-집단=.68, 수평-집단=.75인 것으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는 수직-개인과 수평-개인을 합쳐서 개인주의로, 수직-집단과 수평-집단을 합쳐서 집단주의로 측정했으며, 신뢰도는 각각 .65, .75

이다.

심리적 부적응

본 연구에서는 심리적 부적응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Derogatis 등(1973)이 개발한 Symptom Checklist (SCL-90)를 우리 실정에 맞게 재표준화한 간이정신진단 검사지 Symptom Check List-90-Revision(SCL-90-R) [31]의 단축형인 간이정신진단검사지 The Brief Symptom Inventory(BSI)를 사용하였다. 간이증상검사는 총 53 문항으로 9개의 하위요인, 신체화, 강박증, 대인민감성, 우울, 불안, 적대감, 공포불안, 편집증, 증신증과 1개의 부가적 요인으로 구성된다. 각문항은 각각 1개의 심리적 증상을 대표하고 있으며 각 증상마다 대상자가 오늘을 포함해서 지난 7일동안 경험한 증상의 정도에 따라 5점 척도에 평정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심리적 부적응의 정도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Cronbach's α)는 .98이다.

주관적 안녕감

주관적 안녕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Diener, Emmons, Larsen과 Griffin[32]이 제작하고 류연지[31]가 우리 나라에 맞게 구성한 생활만족도검사(Satisfaction with Life Sclae)를 본 연구에서 사용하였다. SWLS는 삶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며 삶에 관한 모든 영역을 포괄적으로 통합하여 제작되었다. 총 5문항으로 Likert식 7점 척도이며 합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Diner의 연구에서 미국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검사의 신뢰도 지수는 .87이었고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신뢰도 지수는 .86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87이다.

2.3 자료 분석

전체 설문 참여자 386명 중 문화성향에서 개인주의 및 집단주의로 분류된 138명의 자료를 기반으로 결과 분석을 했다. 먼저 정서표현양가성, 간이정신진단검사, 주관적 안녕감, 그리고 집단주의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구하고, 이들 변인 간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또한 조절효과 검증을 위해 중심화 값을 사용하여 위계적 회귀 분석을 하였으며, 이를 위해 윈도우용 SPSS 23.0을 사용하였다.

3. 연구 결과

3.1 주요변인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 변인 간 상관 분석

정서표현양가성과 그 하위변인들, 집단주의, 간이정신진단검사의 각 하위변인들, 주관적 안녕감의 평균 및 표준편차, 그리고 이들 변인간의 상관을 알아보았다 (table1). 그 결과, 정서표현양가성은 간이정신진단검사의 하위변인인 신체화($r=.32, p<.001$), 강박증($r=.55, p<.001$), 대인예민성($r=.58, p<.001$), 우울($r=.53, p<.001$), 불안($r=.48, p<.001$), 적대감($r=.40, p<.001$), 공포불안($r=.36, p<.001$), 편집증($r=.54, p<.001$), 정신증($r=.52, p<.001$)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었으며, 주관적 행복감($r=-.35, p<.001$)과는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보였다. 정서표현양가성의 하위척도인 자기방어양가성과 간이정신진

Table 1. Means, standard deviation, amd bivariate correlations among variables (N=138명)

	1	2	3	4	M (SD)
BSI sum	.54**	.56***	.41**	-.16	1.71 (.59)
somatization	.32***	.30***	.28**	-.27**	1.47 (.53)
obsessive-compulsive	.55***	.58***	.41***	-.12	2.04 (.70)
interpersonal sensitivity	.58***	.58***	.48***	-.10	2.07 (.78)
depression	.53***	.56***	.40***	-.14	1.82 (.80)
anxiety	.48***	.49***	.38***	-.13	1.76 (.69)
hostility	.40***	.46***	.26**	-.21*	1.68 (.72)
phobic anxiety	.36***	.40***	.26**	-.06	1.34 (.51)
paranoid ideation	.54***	.58***	.40***	-.16	1.67 (.66)
psychoticism	.52***	.55***	.39***	-.14	1.60 (.67)
subjective well-being	-.35***	-.35***	-.23**	.10	3.84 (1.13)
collectivism	.08	-.03	.19*	1	1.18 (.56)
M	3.11	2.93	3.30	1.18	-
(SD)	.61	.69	.65	.56	-

* $p < .05$, ** $p < .01$, *** $p < .001$

1.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2. self-defensive emotional expressiveness
3. relation-involved emotional expressiveness
4. collectivism

단검사의 하위변인들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신체화($r=.30, p<.001$), 강박증($r=.58, p<.001$), 대인예민성($r=.58, p<.001$), 우울($r=.56, p<.001$), 불안($r=.49, p<.001$), 적대감($r=.46, p<.001$), 공포불안($r=.40, p<.001$), 편집증($r=.58, p<.001$), 정신증($r=.55, p<.001$)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었으며, 주관적 행복감($r=-.35, p<.001$)과는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보였다. 관계관여양가성과 간이정신진단검사의 하위변인인 신체화($r=.28, p<.01$), 강박증($r=.41, p<.001$), 대인예민성($r=.48, p<.001$), 우울($r=.38, p<.001$), 불안($r=.26, p<.001$), 적대감($r=.26, p<.01$), 공포불안($r=.26, p<.01$), 편집증($r=.46, p<.001$), 정신증($r=.39, p<.001$)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었으며, 주관적 행복감($r=-.23, p<.01$)과는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집단주의는 신체화($r=.27, p<.01$), 적대감($r=.21, p<.05$)과 부적 상관을, 관계관여적 양가성($r=.19, p<.05$)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정서표현양가성이 높을수록, 다양한 심리적 부적응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으며, 주관적 행복감은 낮아짐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계성은 자기방어양가성과 관계관여양가성의 경우에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또한 집단주의 문화성향이 높을수록 신체화와 적대감이 낮으며, 관계관여양가성은 높아짐을 알 수 있다.

3.2 정서표현양가성과 심리적 부적응의 관계에서 집단주의 문화성향의 조절 효과

정서표현양가성과 심리적 부적응의 관계에서 집단주의 문화성향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정서표현양가성과 집단주의 문화성향을 독립변인에 투여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단계에서는 정서표현양가성, 집단주의 문화성향을 투입하였고, 2단계에서는 정서표현양가성과 집단주의 문화성향의 상호작용 변인을 추가로 투입하였다. 각 변인은 다중공선성이 의심되어 중심화(centering)한 값을 사용하였다[37].

분석결과를 보면 첫 번째, 정서표현양가성과 집단주의 문화성향이 심리적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1단계에서 정서표현양가성과 집단주의 문화성향이 심리적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정서표현양가성: $\beta=.55, p<.001$; 집단주의 문화성향: $\beta=-.21, p<.01$). 그리고 2단계에 투입한 정서표현양가성과 집단주의 문화성향의 상호작용은 유의미하지 않았다($\beta=-.06, p>.05$)(table2).

Table 2. The moderating effects of collectivism in the relationship of between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A.E.E) and Psychological maladjustment(BSI sum) (N=138명)

D.V.	I.V.	β	R^2 (adj R^2)	ΔR^2	F
BSI sum	step 1	A.E.E. .55*** collectivism -.21**	.33 (.32)	.32	33.29***
	step2	A.E.E. .56*** collectivism -.21**	.33 (.32)	0	22.35***
		A.E.E. \times collectivism -.06			

* $p < .05$, ** $p < .01$, *** $p < .001$

두 번째, 관계관여양가성과 집단주의 문화성향이 심리적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1단계에서 관계관여양가성과 집단주의 문화성향이 심리적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관계관여양가성: $\beta=.46, p<.001$; 집단주의 문화성향: $\beta=-.25, p<.01$). 그리고 2단계에 투입한 관계관여양가성과 집단주의 문화성향의 상호작용은 유의미하지 않았다($\beta=-.01, p>.05$)(table3).

즉, 정서표현양가성은 심리적 부적응이 더 높아지게 하며, 집단주의 문화성향은 심리적 부적응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정서표현양가성과 집단주의 문화성향의 상호작용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관계관여적 양가성과 집단주의 문화성향의 영향도 동일한 양상이며, 이들 간 상호작용효과는 역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The moderating effects of collectivism in the relationship of between relation-involved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R.A.E.E) and psychological maladjustment (BSI sum) (N=138명)

D.V.	I.V.	β	R^2 (adj R^2)	ΔR^2	F
BSI sum	step 1	R.A.E.E. .46*** collectivism -.25**	.23*** (.21)	.20 (.21)	19.66***
	step 2	R.A.E.E. .46*** collectivism -.25**	.23 (.21)	0	13.02***
		R.A.E.E. \times collectivism .01			

* $p < .05$, ** $p < .01$, *** $p < .001$

그 외에 정서표현양가성과 집단주의 문화성향이 심리적 부적응의 각 하위요인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모든 하위요인 즉, 신체화($\beta = -.09, p > .05$), 강박증($\beta = .11, p > .05$), 대인예민성($\beta = .06, p > .05$), 우울($\beta = .05, p > .05$), 불안($\beta = .04, p > .05$), 적대감($\beta = -.04, p > .05$), 공포불안($\beta = .13, p > .05$), 편집성($\beta = .10, p > .05$), 정신증($\beta = .05, p > .05$)에 대한 상호작용효과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또한, 관계관여적 정서표현양가성과 집단주의 문화성향이 심리적 부적응의 각 하위요인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모든 하위요인 즉, 신체화($\beta = -.15, p > .05$), 강박증($\beta = .08, p > .05$), 대인예민성($\beta = .02, p > .05$), 우울($\beta = .03, p > .05$), 불안($\beta = -.001, p > .05$), 적대감($\beta = -.06, p > .05$), 공포불안($\beta = .11, p > .05$), 편집증($\beta = .05, p > .05$), 정신증($\beta = -.002, p > .05$)에 대한 상호작용효과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3.3 정서표현양가성과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집단주의 문화성향의 조절 효과

정서표현양가성과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집단주의 문화성향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정서표현양가성과 집단주의 문화성향을 독립변인에 투여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단계에서는 정서표현양가성, 집단주의 문화성향을 투입하였고, 2단계에서는 정서표현양가성과 집단주의 문화성향의 상호작용 변인을 추가로 투입하였다. 각 변인은 다중공선성이 의심되어 중심화(centering)한 값을 사용하였다[37].

분석결과 첫 번째, 정서표현양가성과 집단주의 문화성향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1단계에서 정서표현양가성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했으며($\beta = -.33, p < .001$), 집단주의 문화성향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beta = .13, p > .05$). 그리고 2단계에 투입한 정서표현양가성과 집단주의 문화성향의 상호작용은 유의미하지 않았다($\beta = -.02, p > .05$)(table4).

두 번째, 관계관여적 정서표현양가성과 집단주의 문화성향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는, 1단계에서 관계관여적 정서표현양가성은 주관적 안녕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beta = -.44, p < .001$), 집단주의 문화성향은 주관적 안녕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beta = .22, p > .05$). 그리고 2단계에 투입한 관계관여적 정서표현양가성과 집단주의 문화성향의 상호

작용은 유의미하지 않았다($\beta = -.02, p > .05$)(table5).

즉, 정서표현양가성은 주관적 안녕감을 감소시키며, 집단주의 문화성향은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서표현양가성과 집단주의 문화성향의 상호작용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관계관여적 양가성과 집단주의 문화성향의 영향도 동일한 양상이며, 이들 간 상호작용효과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The moderating effects of collectivism in the relationship of between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A.E.E) and subjective well-being(S.W.) (N=138명)

D.V.	I.V.	β	R^2 (adj R^2)	ΔR^2	F
step 1	A.E.E.	-.33***	.12	.12	9.12***
	collectivism	.13	(.11)		
S.W.	A.E.E.	-.33***	.12	0	6.06***
	collectivism	.13			
	A.E.E.× collectivism	-.02			

* $p < .05$, ** $p < .01$, *** $p < .001$

Table 5. The moderating effects of collectivism in the relationship of between relation-involved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R.A.E.E) and subjective well-being (N=138명)

D.V.	I.V.	β	R^2 (adj R^2)	ΔR^2	F
step1	R.A.E.E.	-.44**	.07	.07	5.36***
	collectivism	.22	(.06)		
S.W.	R.A.E.E.	-.26**	.07	0	3.57***
	collectivism	.15			
	R.A.E.E.× collectivism	.02			

* $p < .05$, ** $p < .01$, *** $p < .001$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정서표현양가성이 심리적 부적응 및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지와 이러한 관계에서 집단주의 문화성향이 조절효과를 보이는지 알아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들을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정서표현양가성, 심리적 부적응, 주관적 안녕감, 그리고 집단주의 문화성향의 관계에 대한 상관 분석 결과, 정서표현양가성은 심리적 부적응과 정적 상관, 주관적 안녕감과 부적 상관을 보였고, 집단주의 문화성향과는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정서표현양가성의 하위 요인인 자기방어 양가성도 같은 양상을 보였으며, 관계관여 양가성은 심리적 부적응과 정적 상관, 주관적 안녕감과 부적 상관을 보였으나, 집단주의 문화성향과는 정적상관을 보였다. 이는 정서표현양가성이 높은 사람들이 다양한 심리적 부적응 양상을 더 많이 보이며 주관적 안녕감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정서표현양가성 중 자기방어양가성은 집단주의 문화성향과 관계가 없지만, 관계관여양가성이 높은 사람들은 집단주의 문화성향도 높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정서표현양가성과 심리적 부적응의 관계에서 집단주의 문화성향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 정서표현양가성과 집단주의 문화성향은 심리적 부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만, 이들의 상호작용은 유의미하지 않아서 조절효과는 보이지 않았다. 또한 정서표현 양가성의 하위요인인 관계관여양가성도 심리적 부적응과의 관계에서 집단주의 문화성향과 조절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많은 연구에서 논의했던 것과 달리, 집단주의 문화성향이 높고 낮음에 따라 관계관여양가성이 심리적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지 않음을 의미한다. 즉 관계관여양가성이 집단주의 문화의 영향을 받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정서표현양가성과 주관적 행복감의 관계에서 집단주의 문화성향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 정서표현양가성은 주관적 행복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만, 집단주의 문화성향은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이들 간 상호작용효과도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러한 양상은 관계관여양가성도 동일했다. 즉 정서표현양가성과 그 하위요인인 관계관여양가성이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 집단주의 문화성향은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들이 의미하는 바에 대한 종합적 논의 및 연구의 의의를 제시하면, 첫째, 정서표현양가성이 심리적 부적응을 증가시키고, 주관적 안녕감을 감소시키는 과정에서 집단주의 문화성향이 높거나 낮은 것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즉 문화적 성향에 관계없이 정서표현양가성은 심리적 부적응과 주관적 안녕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는 자기방어양가성에 비해 관계관여양가성이 심리적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것이 집단주의 문화로 인한 것이라는 기존의 주장과는 다른 결과이다. 관계관여양가성이 자기방어양가성에 비해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적은 것은 집단주의 문화가 아닌 이들 하위 요인의 성격적 측면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즉, 자기방어양가성은 정서표현의 결과에 대한 두려움 등 정서표현에 대한 회피적 경향과 관계를 고려한 정서표현 억제 측면이 포함되어 있고, 관계관여양가성은 관계를 고려해서 정서표현을 억제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23]. 따라서 자기방어양가성이 더 부적응적인 정서조절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정서표현양가성을 대표하는 보다 핵심적인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관계관여양가성은 자기방어양가성에 비해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병리적 영향력이 더 적을 수 있다. 또한 관계관여양가성은 자기방어양가성을 통해 대인관계문제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34]된 바 있는데 이러한 연구결과 역시 정서표현양가성이 심리적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자기방어적 측면이 보다 많은 역할을 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둘째, 집단주의 문화성향은 정서표현양가성 전체와는 상관을 보이지 않지만 하위요인인 관계관여양가성과는 상관을 보인다. 이는 집단주의 성향이 높은 사람들이 관계관여양가성을 좀 더 많이 보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집단주의 문화성향은 관계관여양가성과 심리적 부적응 및 주관적 안녕감 간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는 보이지 않았다. 이는 관계관여양가성이 높은 사람이 집단주의 문화성향을 더 많이 보일 수는 있지만 이들의 집단주의 문화성향이 관계관여양가성이 심리적 부적응 및 주관적 안녕감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는 관여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즉 집단주의 문화성향은 관계관여양가성의 역기능적 측면이 심리적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상호작용을 하지는 않는다. 관계관여양가성의 이러한 기제는 정서억제와 정서표현양가성의 차이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즉 정서억제는 정서를 경험하지만 의식적으로 표현하지 않는 것으로 집단주의 문화에서 그 부정적 영향이 적다고 연구들을 통해 확인됐다. 정서억제는 개인이 속한 사회의 규범의 영향을 받는데 가족과 주변인들과의 생활 과정에서 자신이 경험하는 정서를 다 표현하지 않고 억제하는 것을 어려서부터 배운 사람들은 정서를 억제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이에 대한 불

편감이 적을 수 있다. 따라서 이로 인한 심리적 부적응도 적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정서표현양가성은 정서를 표현하고 싶으나 표현했을 때의 부정적 결과를 두려워해서 이에 대해 갈등하거나, 표현한 후에 후회하는 것이므로, 갈등과 처벌에 대한 두려움에 더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집단주의 사회에서 성장한 사람들은 정서표현을 하지 않는 것에 이미 익숙해져 있고 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갈등을 경험하지 않을 수 있다. 즉 집단주의 문화성향은 정서표현에 대해 양가적 갈등을 경험하는 병리적 특성과는 상호영향을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집단주의 사회에서의 정서표현억제는 타인을 위한 배려가 동기이다. 그러나 관계관여양가성의 문항들은 자기를 방어하기 위한 동기와의 상관성이 높고 내면에 이러한 동기가 잠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관계관여양가성의 역기능적 특징은 집단주의 문화적 특징과는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서 정서표현 및 정서억제와 달리 정서표현양가성은 집단주의 문화에서 그 부정적 영향에 조절효과를 보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국내 연구에서 관계관여양가성의 영향에 대한 해석을 집단주의 문화와의 관련성의 관점에서 제시하는 것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집단주의 문화적 특성은 정서억제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정서표현에 대한 갈등과는 관련이 없음을 알게 됨으로써 정서조절 및 표현기제와 문화의 관계에 대한 보다 명확한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향후 연구에서는 정서표현양가성이 서구 개인주의 사회와 마찬가지로 집단주의 사회에서도 심리적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특성이므로, 이를 완화하고 심리적 적응수준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심리적 개입법들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성이 높다. 특히 관계관여양가성과 심리적 부적응의 관계가 집단주의 사회에서 완화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정서경험에 대해서도 개입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국내에서 정서표현양가성을 타당화하면서 제시된 두 하위요인, 즉 자기방어양가성과 관계관여양가성에 대해 각각의 독특한 성격을 보다 면밀히 변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두 하위요인의 관계가 서로 포함되거나, 한 요인이 다른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등 다양

한 관계성을 가정하고 이에 대한 탐색적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연구 참여자들을 집단주의 문화성향자와 개인주의 문화성향자로 분류하는 과정에서 많은 인원이 제외됨으로 인해 분석에 포함된 참여자수가 많지 않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하고 많은 수의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함으로써 연구결과를 일반화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개인주의 문화권과 집단주의 문화권, 즉 동양권 국가와 서구권 국가에서 정서표현양가성의 심리적 영향에 대한 비교문화연구를 실시하고 정서억제와의 차이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통해 두 변인이 문화적 특징과 상호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보이는 유사점과 차이점들을 이해하고 각각의 문화권에서 정신건강 향상을 위한 특화된 개입법들을 모색하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References

- [1] B. M. Depaulo. "Nonverbal and self-presentation". *Psychological Bulletin*, 111, pp. 203-244. 1992.
- [2] J. J. Gross, & O. P. John. "Individual differences in two emotion regulation process: Implications for affect, relationships, and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5(2), pp. 348-362, 2003.
- [3] J. H. Kahn, & A. M. Garrison, "Emotional self-disclosure and emotional avoidance: relations with symptoms of depression and anxiet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6(4), pp. 573-584. 2009.
- [4] W. J. Park. "The effects of emotion suppression on depression and anxiety: the moderating effects of Nunchi".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18(4), pp. 47-63. 2017.
- [5] R. U. Cheung, & I. J. Park, "Anger suppression, interdependent self-control, and depression among Asian American and European American college students". *Cultural diversity and ethnic minority psychology*, 16(4), pp. 517-525, 2010.
- [6] G. H. Cho. "Culture and person perception".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5(1). 104-139. 1996.
- [7] G. H. Cho, "Cultural disposition and the styles of control".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17(2), pp. 85-106. 2003.
- [8] L. A. King, & R. A. Emmons. "Conflict over emotional expression: Psychological and physical correlat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pp. 864-877, 1990.
- [9] H. Y. Choi, & K. W. Min, "The study on the validation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questionnaire: comparison of suppression constructs in Korean culture".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21(4), pp. 71-89, 2007.

- [10] D. Y. Kim & E. H. Kim, "The Mediating Effect of Displaced aggression on the relation between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and depression: Self-defensive and relationship-involved ambivalenc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17(6), pp. 43-62, 2016.
- [11] Lee, M. H. "The effects of college student's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on psychological well-being: the mediating effect of cognitive reappraisal." doctoral thesis, Hanyang University. 2013.
- [12] H. S. Hwang & Y. S. Lee, "Study on Moderating Effect of Psychological Flexibility at Impact on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affects Subjective Well-being ; College students", *The Korea Contents Society*, 16(3), pp. 335-345, 2016.
- [13] D. A. Youn, "The relationship between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and marital satisfaction: The mediating effects of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Master's thesis, The Catholic University, 2012.
- [14] A. M. Garrison, & J. H. Kahn, "Intraindividual relations between the intensity and disclosure of daily emotional events: the moderating role of depressive symptom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7(2), pp. 187-197, 2010.
- [15] J. W. Pennebaker, "Traumatic experience and psychosomatic disease" Exploring the roles of behavioral inhibition, obsession, and confiding". *Canadian Psychology*, 26, pp. 82-95. 1985.
- [16] S. Roth, & L. J. Cohen. " Approach, avoidance and coping with stress", *American Psychologist*, 41, 813-819.
- [17] Diener, E.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 pp. 542-575. 1984.
- [18] J. S. Park, I. S. Kim., M. H. Hyun, & J. H. Yu. "The effects of emotional awareness deficit, emotional expressivity,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on somatization, depression and stress experience frequency".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13(3), pp. 571-581. 2008.
- [19] Y. J. Woo, "Influences of perceived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on middle school students' social anxiety : the mediating effects of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Master's thesis, Seogang University. 2014
- [20] S. H. Moon, S. H. Yoo, & K. M. Yun, "Mediating Effects of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on on the Relation between Parentification and Well-Being in Adolescents", *Journal of Youth Welfare*, 16(3), pp. 105-128, 2014.
- [21] E. M. Suh, " Emotion norms, values, familiarity and subject well-being: A cross-cultural examination".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Champaign.
- [22] H. M. Lee, J. H. Heo, C. G. Oh, & W. J. Park. " Development of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Scal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19(1), pp. 65-86. 2018.
- [23] Choi, H. Y., Min, K. W., & Lee, D. G. "The role of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on in the link of belief in emotional expression and psychological symptom".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9(3), pp. 1063-1080. 2008.
- [24] J. E. Um. "Relationship between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Master's thesis, The Catholic University. 2010.
- [25] H. C. Triandis. "The self and social behavior in differing cultural contexts", *Psychological Review*, 96, pp. 506-520, 1989.
- [26] H. C. Triandis, K. Leung, M. Vilareal, & F. L. Clark, "Alocentric vs. idiocentric tendencies: Convergent and discriminant validation",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19, pp. 395-415. 1995.
- [27] G. H. Cho, & J. W. Myung, "Cultural disposition and types of self-consciousness",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15(1), pp. 139-165, 2001.
- [28] W. J. Park, "The moderating effect of collectivism self-orientation in the relationships between attachment insecurities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17(5), pp. 65-83. 2016.
- [29] T. M. Singelis, H. C. Triandis, D. D. Blawuk, & M. Gelfand, "Horizontal and vertical dimension of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A theoretical and measurement refinement", *Crosscultural research*, 29, pp. 240-275, 1995.
- [30] K. B. Kim, " Morality, interpersonal relations, and ingroup-outgroup distinction :cross-cultural analysis"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 [31] K. I. Kim, H. T. Won, J. H. Lee, & K. Y. Kim, "Standardization study of symptom check list-90 in Korea I", *Journal of the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17, 4, 1978.
- [32] E. D. Diener, R. A. Emmons, R. J. Larson, & S. Griffin, "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9(1), pp. 71-75, 1985.
- [33] Y. J. Ryu, "The Effects of personality and leves of psychological needs on subjective well-being",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 [34] An, S. K. & Chung, Y. J, "The effects of rejection sensitivity on international problems of university students: The mediating effect of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8(3), pp. 719-741, 2016.

박 원 주(Won-Ju Park)
[정회원]

- 1999년 2월 :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심리학과 (문학석사)
- 2011년 2월 :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심리학과 (철학박사)
- 2012년 3월 ~ 2013년 8월 : Georgia State University Visiting scholar
- 2014년 3월 ~ 현재 : 한양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육중점교수

<관심분야>

상담심리학, 정신역동적 상담, 정서와 문화